

## 신장수여자의 수술경과시간에 따른 자기존경감, 희망감, 염려 및 스트레스원의 차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정신과학교실. 일반외과교실\*\*  
박 인 호·유 희 정·김 창 윤·이 철·한 오 수·한 덕 종\*\*

=Abstract=

### Differences of Self-Esteem, Hopes, Concerns and Stressors following Kidney Transplantation of Kidney Recipients

Park In-Ho\*, Yoo Hee-Jung\*, Kim Chang-Yoon\*, Lee Chul\*, Han Oh-Su\*, Han Duck-Jong\*\*  
*Department of Psychiatry\* & Department of Surge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self-esteem, hopes, concerns and total stress scores of 110 kidney recipients in before(N=32) and following kidney transplantation [1 to 6 months(N=29), 6 to 12 months(N=23), 12 to 36 months(N=26)] and utilizing severity rating scale of 44 potential stressors on a 5-point scale of 110 kidney recipients in before(N=32) and following kidney transplantation operation [1 to 6 months(N=29), 6 to 12 months(N=23), 12 to 24 months(N=15) and 24 to 36 months(N=11)]. On scores of hopes and total stress, pretransplant group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ree posttransplant recipient groups. Bu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our transplant kidney recipient groups on the scores of self-esteem and concerns.

In the pretransplant group, craving for foods was identified as the most stressful event, on the contrary, changes in friends was identified as the lowest stressful event. In the 1 to 6 months posttransplant group, side effect of medications was identified as the most stressful event, however, loss of contact with dialysis patients was identified as the lowest stressful event. In the 6 to 12 months posttransplant group, cost of medication, changes in body appearance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tressful event, on the other hand, managing of medications at home was identified as the lowest stressful event. In the 12 to 24 months posttransplant group, cost of medication and insurance coverage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tressful event, but possibility of dying and competence of nursing staff were identified as the lowest stressful event. In the 24 to 36 months posttransplant group, changes of body appearance was identified as the most stressful event, on the contrary, possibility of infection was identified as the lowest stressful event. Insurance coverage was a continuing concern throughout posttransplant period.

Key Words: Kidney transplant recipient, Self-esteem, Hopes, Concerns, Stressors.

## 1. 서 론

신장이식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최근에 와서 장기이식의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 일차적인 치료로서 인식되고 있다. 신장이식수술이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으로 부터 해방됨으로써 장기수여자의 건강을 향상(Hauser, Williams, Strong, Ganza 및 Hathaway, 1991)시켜 생활의 질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Hathaway, Strong 및 Ganza, 1990).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이 겪게 될 생활의 질적 변화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살펴 보면 Hayward, Kish, Frey, Kirchner, Carr 및 Wolfe (1989)는 신장이식 이후 2개월 부터 2년이 경과된 신장수여자를 대상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44가지 스트레스원에 대한 척도를 실시한 결과,장기의 거부반응이 가장 우선되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였고,미래에 대한 불확실감과 전염가능성 순이었다. 반면 친구와의 관계변화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입원과정,투석환자와의 접촉상실 순으로 나타났다. Frey(1990)는 신장이식수술 이후 6주가 경과된 수여자들을 대상으로 Hayward등(1989)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반복될 수 있는 입원의 가능성이 가장 우선되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였고 장기의 거부반응과 투약을 위한 비용은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Hayward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어 친구와의 관계의 변화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두연구 간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Sutton과 Murphy(1989)는 신장이식 수술 후의 경과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수술 직후부터 23개월이 경과된 집단과 수술 이후 24개월에서 48개월이 경과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서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이결과 수술 직후부터 23개월이 경과된 집단의 장기수여자들은 수술에 따른 비용과 장기의 거부반응을 가장 큰 스트레스 원으로서 지각하였고 홀로 남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수술 이후 24개월에서 48개월이 경과된 집단의 장기수여자들은 장기의 거부반응과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는 점을 가장 심한 스트레스 원으로서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성공적인 장기 이식수술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원이 문제 중심에서 정서 중심으로 변화하며 신장이식 수술이후 장시간이 경과되었을 때에 비해 수술이후 경과된 시간이 짧은 신장수여자들이 좀 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지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기존 연구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신장을 이식 받은 신장수여자들의 생활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술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신장수여자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단지 수술을 받은 이후 6주가 경과(Frey,1990)되었거나 수술이후의 시간이 비교적 많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대상의 연구일 지라도 단지 24개월을 기점으로 하여 24개월 전후의 집단으로만 신장수여자집단을 구분(Sutton과 Murphy,1989)한 정도일 뿐 더욱 장기간에 따른 영향을 세분하여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장 이식수술 이후의 경과된 시간의 영향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1-10일 이내의 집단,수술이후 1-6개월이 경과된 집단,6-12개월이 경과된 집단 및 수술이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수술이후 1년-3년이 경과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신장이식 수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시행받아야 할 혈액투석의 압박으로 부터 자유로와 지고 독립심과 자기신뢰감이 증가됨에 따라 일상적인 역할과 관련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자기-존경심의 변화여부를 밝혀 볼 것이다.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건강이 회복되고 복직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른 희망감과 동시에 신장이식 수술 이후에도 지속되는 염려감이 수술 이후의 시간경과에 따라 구분된 집단에서 과연 차이가 나는지 밝혀 볼 것이다.

끝으로 수술 이후의 경과된 시간에 따라 구분된 집단마다 가장 심한 스트레스 원으로서 지각되는 요인들과 가장 가볍게 지각되는 스트레스 원이 무엇인지 밝혀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술된 바와 같이 동

일한 방식으로 집단을 구분하되 임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비교적 사례수는 적은 편이지만 신장이식 수술 이후 경과된 시간이 12-36개월에 해당되는 집단을 다시 세분화하여 수술 이후 12-24개월, 24-36개월이 경과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신장수여자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상태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신장이식수술을 이미 받은 환자는 물론 장차 수술을 받게 될 환자들 이 수술이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이해함으로써 임상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표 1 신장수여자의 수술이후 경과기간,연령 및 교육연령

수술이후 경과기간	환자수 (총 110명)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이식수술 1-10일전	32	수술후 경과시간(개월)	0.00	-
		연령	34.44	8.61
		교육연령	11.59	4.98
수술이후 1-6개월	29	수술후 경과시간(개월)	3.64	1.21
		연령	35.09	10.84
		교육연령	11.60	3.16
수술이후 6-12개월이내	23	수술후경과시간(개월)	8.65	1.27
		연령	34.78	9.19
		교육연령	12.17	3.10
수술이후 12-24개월이내	15	수술후경과시간(개월)	17.00	3.53
		연령	33.00	10.27
		교육연령	12.40	1.88
수술이후 24-36개월이내	11	수술후경과시간(개월)	35.00	8.29
		연령	36.64	8.73
		교육연령	11.82	1.83

신장이식 수술 이후 경과된 기간을 제외하고 가급적 연령,교육수준을 비슷하게 짝짓기(matching)했기 때문에 수술이후 경과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간의 연령( $F=0.01, P>.99$ ) 및 교육연령( $F=0.21, P>.89$ )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1. 연구대상

### 1) 신장수여자 집단

신장이식수술 1-10일 이전 상태인 신장이식수술 예정자 32명과 이미 신장수술을 받고 수술후 1-6개월 이내인 집단 29명, 6-12개월이 경과된 집단 23명, 12-24개월이 경과된 집단 15명 및 24-36개월이 경과된 집단 11명으로 총 110명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68명, 여자 42명 이었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66명 미혼 41명, 이혼 1명, 사별 1명 및 재혼 1명씩 이었다. 수술이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상기의 5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5집단 각각의 평균수술이후의 경과기간, 평균연령 및 평균교육연령은 표 1과 같다.

## 2. 검사도구

① 자기 존경감 척도(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이 검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43이어서 내적 일치도가 다소 낮은 편이

었다.

② 신장이식수술후의 예상되는 생활의 질적 변화(Hathaway등,1990)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7가지의 주요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희망)과 부정적인 측면(염려)으로 구분하여 각각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③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검사(The Kidney Transplant Recipient Stress Scale(KTRSS); Hayward 등,1989; Frey, 1990):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총 44가지의 스트레스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심하다(5)까지의 5점 척도로 반응토록 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실시 절차

1993년 2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까지 수술이전 상태인 신장수여자를 대상으로 신장이식수술 1-10일 이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외의 이미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신장수여자에 대한 자료수집은 1989년 1월~1993년 1월 까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신장수여자 중에서 일반외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외래 치료가 중단된 각 신장수여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충분히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 우편으로 검사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자기보고식 검사수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면접과 전화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는 임상심리 기초수련 과정 중인 경험있는 면접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 4. 자료분석

수술이후의 경과된 시간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즉,신장이식 수술 1-10일 전, 수술경과이후 1-6개월, 6-12개월, 12-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4 집단 간의 자기존경감, 희망감, 염려사항, 총 스트레스 점수 변인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44가지 각각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평가는 전술된 방식과 동일하게 집단을 구분하되 12-36개월에 해당되는 26명을 다시 12-24

개월이 경과된 집단과 24-36개월이 경과된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5집단을 각 집단별로 44가지 스트레스원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순위를 결정했는데 44가지 각각의 스트레스 원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균값이 동일하여 순위가 중복되는 스트레스 원들에 대해서는 각 중복되는 스트레스 원이 차지하는 순위의 합을 구하여 이 값들의 평균치를 순위로 제시하였다.

## III. 결 과

표 2. 자기 존경감, 희망감, 염려사항 및 총 스트레스 점수에 관한 신장이식수술 1-10일 전집단과 수술이후 1-6개월, 6-12개월, 12-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집단 간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 인	이식수술 1-10일전	수술이후 1-6개월	수술이후 6-12개월	수술이후 12-36개월	F 값
자기존경감	26.65	27.65	27.83	27.81	0.55
희 망 감	10.23	9.51	9.28	9.66	2.38*
염 려 사 항	8.16	7.87	7.96	7.65	0.22
총스트레스	122.94	98.52	106.95	98.30	5.47**

\* : P<.05, \*\* : P<.01

신장이식수술을 이미 마친 상태인 신장수여자 세 집단이 신장이식 수술 1-10일 이전 상태인 신장수여자들에 비해 자아존경감의 평균점수는 높았으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신장이식수술에 대한 희망감은 수술이전 상태인 신장수여자들이 이미 수술을 받은 이후인 신장수여자들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결과를 얻은 반면 신장이식수술에 따른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수술받기 이전 집단의 평균점수가 수술이후 상태인 나머지 세 신장이식수술 이후의 신장수여자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끝으로 신장수여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총점에서 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점수는 신장이식수술 이전 상태의 신장수여자 집단의 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수술이후 6-12개월이 경과된 집단, 수술 이후 12-36개월 경과 집단 그리고 수술 이후 1-6개월이 경과된 집단 순이었다.

표 4. 신장이식 수술 1-10일 전집단과 수술이후 1-6개월, 6-12개월 및 12-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 각각의 44스트레스원의 평균 및 순위

	수술 1-10일전		수술이후 1-6개월		수술이후 6-12개월		수술이후 12-24개월		수술이후 24-36개월	
	1. 재입원의 가능성	2.484	40.5	1.968	42.5	2.458	18.5	2.077	35	2.250
2. 이식박은 신장의 거부반응 가능성	2.581	37.5	2.290	15	2.417	23	2.308	19	2.625	2.5
3. 치료비의 문제	2.968	12.5	2.581	3.5	3.000	1.5	2.769	1.5	2.250	21.5
4. 앞날에 대한 불안감	2.839	19	2.387	10	2.958	3	2.538	8.5	2.500	6.5
5.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	3.032	9	2.677	1	2.625	8.5	2.462	11	2.125	33
6. 외모의 변화	2.871	17	2.355	12.5	3.000	1.5	2.615	5	3.000	1
7. 전염가능성	2.613	33.5	2.258	18.5	2.333	31	2.077	35	1.750	44
8. 권태로움	2.484	40.5	2.000	41	2.333	31	2.154	28	2.250	21.5
9. 수술을 기다림	3.226	4.5	2.065	36.5	2.083	39.5	2.308	19	2.000	38
10. 장기수여자자로 불리우는 것	2.742	22	2.258	18.5	2.375	26.5	2.154	28	2.250	21.5
11. 보험의 적용범위	3.226	4.5	2.548	5	2.875	4	2.769	1.5	2.500	6.5
12. 잦은 피검사	3.323	2	2.581	3.5	2.583	10	2.538	8.5	2.250	21.5
13. 음식을 먹고 싶음	3.387	1	2.516	6	2.500	13.5	1.923	42	2.000	38
14. 외래진료시의 차편문제	3.258	3	2.613	2	2.667	7	2.692	3	1.875	42
15. 직장문제	2.871	17	2.355	12.5	2.750	5	2.308	19	2.250	21.5
16. 성생활의 변화	2.613	33.5	2.065	36.5	2.458	18.5	2.308	19	2.625	2.5
17. 사망 가능성	2.258	43	2.032	39.5	2.208	37	1.692	43.5	2.250	21.5
18. 가족에 대한 책임의 변화	2.710	25	2.226	22	2.417	23	2.385	13.5	2.250	21.5
19. 작업시의 변화	2.645	30.5	2.129	29	2.333	31	2.231	24	2.375	10.5
20. 수술에 따르는 진통	3.129	6	2.097	32.5	2.500	13.5	2.308	19	2.125	33
21. 휴식시간을 보내는 것	2.677	28.5	2.194	23.5	2.500	13.5	2.308	19	2.125	33
22.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신뢰	2.613	33.5	2.258	18.5	2.042	42	2.154	28	2.500	6.5
23. 진단상의 절차	2.710	25	2.194	23.5	2.458	18.5	2.154	28	2.500	6.5
24. 간호학생의 간호	2.581	37.5	2.129	29	2.375	26.5	2.077	35	2.286	12
25.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문제	2.871	17	2.065	36.5	2.458	18.5	2.231	24	2.500	6.5
26. 식사제한	3.032	9	2.032	39.5	2.042	42	2.385	13.5	2.250	21.5
27. 여행시의 변화	2.774	20.5	2.323	14	2.417	23	2.077	35	2.250	21.5
28. 친숙치 않은 검사	3.097	7	2.387	10	2.458	18.5	2.385	13.5	2.250	21.5
29. 의대생과의 관계	2.677	28.5	2.065	36.5	2.083	39.5	2.000	40.5	2.000	38
30. 입원동안의 격리생활	2.613	33.5	2.097	32.5	2.292	35	2.615	5	2.250	21.5
31. 계속되는 외래진료 스케줄	2.935	14	2.258	18.5	2.625	8.5	2.538	8.5	2.250	21.5
32. 사회적 활동의 변화	2.710	25	2.452	8	2.292	35	2.154	28	2.250	21.5
33. 퇴원 후 격리시켜 주의를 기울임	2.968	12.5	2.484	7	2.375	26.5	2.308	19	2.000	38
34. 익숙하지 않은 수속절차	3.032	9	2.387	10	2.542	11	2.538	8.5	2.125	33
35. 가족내에서의 역할 변화	2.581	37.5	2.258	18.5	2.333	31	2.385	13.5	2.375	10.5
36. 약물 제대로 먹는 것	3.000	11	2.161	26	2.375	26.5	2.077	35	2.500	6.5
37. 간호사의 유능함	2.645	30.5	2.097	32.5	2.292	35	1.692	43.5	2.250	21.5
38. 집에서의 투약관리	2.903	15	2.097	32.5	1.958	44	2.077	35	2.250	21.5
39. 수액섭취의 변화	2.581	37.5	2.161	26	2.125	38	2.000	40.5	2.125	33
40. 친숙하지 않은 주변환경	2.774	20.5	1.968	42.5	2.042	42	2.077	35	1.875	42
41. 정신활동의 변화	2.710	25	2.161	26	2.458	18.5	2.077	35	2.250	21.5
42. 투석환자와의 접촉상실	2.355	42	1.903	44	2.500	13.5	2.231	24	1.875	42
43. 입원절차	2.710	25	2.129	29	2.708	6	2.615	5	2.250	21.5
44. 친구와의 관계변화	2.129	44	2.258	18.5	2.333	31	2.077	35	2.000	38
총 스트레스 점수	122.935		98.516		106.958		99.846		95.429	

수술 1-10일 전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한 스트레스로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음식을 먹고 싶음(1), 잦은 피검사(2), 외래 진료시의 차편문제(3), 보험의 적용범위(4.5), 수술을 기다림(4.5)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가볍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투석환자와의 접촉상실(42), 사망가능성(43), 친구와의 관계 변화(44) 순이었고 신장의 거부반응성(37.5) 역시 매우 가볍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1-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하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1), 외래 진료시의 차편문제(2), 치료비 문제(3.5), 잦은 피검사(3.5), 보험의 적용범위(5) 순이었다. 가장 가볍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권태로움(41), 재입원의 가능성(42.5), 친숙치 않은 주변환경(42.5) 및 투석환자의 접촉상실(44)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6-12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하게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은 치료비의 문제(1.5), 외모의 변화(1.5), 앞날에 대한 불안감(3), 보험의 적용범위(4), 직장문제(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가볍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신뢰(42), 식사 제한(42), 친숙하지 않은 주변환경(42) 및 집에서의 투약관리(44)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12-24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하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치료비의 문제(1.5), 보험의 적용범위(1.5), 외래진료 시의 차편문제(3), 외모의 변화(5), 입원동안의 격리 생활(5) 순이었고 가장 가볍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수액섭취의 변화(40.5), 음식을 먹고 싶음(42), 사망가능성(43.5), 간호사의 유능함(43.5)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전부터 수술 이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치료비의 문제 또는 보험문제는 신장수여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원임이 보고되었다. 이와는 달리 수술이후 경과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투병생활 자체의 실질적인 문제보다 외모의 변화, 앞날에 대한 염려, 또는 입원시의 어려움등 다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24-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하게 지각하는 스트레스 원은 외모의 변

화(1), 이식받은 신장의 거부반응 가능성(2.5), 성생활의 변화(2.5) 등이었고 가장 가볍게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은 외래진료시의 차편문제(42), 친숙하지 않은 주변환경(42), 투석환자와의 접촉상실(42) 및 전염가능성(44) 순이었다. 수술 이후 2년 이내인 집단과 달리 수술이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집단은 신장의 거부반응 가능성을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하는 점은 특징적이다.

표 3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정리하면 이식받은 신장의 거부반응 가능성은 신장이식 수술 이후의 경과된 시간이 길어 질수록 점차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수술 1-10일 이전인 경우(37.5)에는 신장의 거부반응 가능성을 거의 우려하지 않지만 수술이후 24-36개월이 경과된 이후(2.5)에는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 IV. 고 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장이식 수술 1-10일 이전인 신장수여자 집단이 수술 이후 시간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들에 비해 수술로 인한 회복에 대해 더욱 큰 희망감을 보인 반면 동시에 신장수여자들이 체험하게 될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염려사항에 대해 신장수여자 4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과 신장이식 수술 1-10일 전 집단을 제외하고 이미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에 있는 신장수여자 세 집단간에 총 스트레스 점수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F=0.81, P>.11$ )으로 미루어 성공적인 신장이식수술 이후 3년 이상 경과되어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Sutton과 Murphy, 1989)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수술이후 경과된 시간으로 구분된 집단의 특성과 무관하게 보험의 적용범위와 치료비 문제를 심각한 스트레스원(단 예외적으로 수술이후 24-36개월이 경과된 집단에서는 치료비 문제(21.5)의 순위가 낮아졌음)으로 지각한 점은 기존의 연구결과들(Frey, 1990: Hayward등, 1989)과 유사하다. 그러나 Frey(1990)와 Hayward등(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수술 이후 경과된 시간이 6주인 신장수여자의 경

우 반복되는 입원가능성과 장기의 거부반응을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보고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입원의 가능성에 대해 수술 이전(40.5)은 물론 수술 이후 1-6개월(42.5)이 경과된 이후에도 가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하였고 수술 이후 12-24(35)개월이 경과되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신장이식 수술 전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구분된 5집단의 신장수여자들이 사망가능성에 대해 거의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하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신장수여자들이 신장이식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실제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심각하게 지각되는 스트레스 원의 종류가 변화되는데 즉, 신장이식수술이전 부터 수술이후 24개월까지는 힘들게 여겨지던 음식을 먹고 싶음, 외래 진료시의 차원문제 등과 같은 실생활의 어려움이 수술이후 24개월 이상이 경과되면서 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수술이전 또는 거의 수술 이후 24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심각한 스트레스원으로서 지각되지 않던 신장의 거부반응이 수술이후 24-36개월이 경과되는 신장수여자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보험의 적용범위 여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며 외모의 변화는 수술이후 시간이 경과될 수록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가능성은 수술 이후 24-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21.5)들이 수술 이전 부터 수술 이후 24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들이 거의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것(수술이전(43), 수술이후1-6개월(39.5), 수술 이후 6-12개월(37), 수술이후12-24개월(43.5))에 비하면 다소 순위가 높아졌으나 이들 역시 사망가능성을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tton과 Murphy(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수술이후 24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들이 수술이후 24개월 이내인 신장수여자들과 달리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친구와의 관계변화 및 투석환자와의 접촉 상실등에서 신

장이식 수술 이후 2년 이상의 장시간이 경과된 집단에서도 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유희정등(1993)의 연구에서 정상인과 신장이식 수술을 이미 받은 신장수여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정상인과 신장수여자들이 동거치 않는 가족과의 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등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과 연관지을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신장수여자들의 정서적 영향 간의 관계를 밝혀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검사]를 기초로 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장수여자들의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검사를 개발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성공적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장기수여자라 할 지라도 예고없이 나타날 수 있는 장기거부반응의 가능성, 투약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식이제한, 성기능의 약화,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신체적 변화, 면역억제치료의 부작용(Kaplan등, 1983; Sutton과 Murphy, 1989; White, Starr, Ketefian 및 Voepel-Lewis, 1990)은 물론 사망가능성(Terasaki등, 1983)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단일 차원에서일 뿐이었다. 실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생활의 질적 변화를 다룬 내용은 좁은 범위에서는 주로 수술 이후의 직장 및 활동범위에 관한 실제 생활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었던 반면 넓은 범위에서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만족도, 개인적인 발전 상황 및 충족감 그리고 자기존경감등을 다루었다(Hathaway등, 1990). 장차 진행될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범위를 확장하여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들의 생활의 질적 변화를 다차원상에서 비교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만성질환을 앓아온 환자들의 실생활에서의 적응은 물론 정서적인 변화를 좀 더 철저히 탐색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장기수여자들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장이식수술이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및 24개월 등으로 집단을 구분(Frey,1990)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밝혀 보는 것은 물론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종단적인 연구를 하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결과를 얻게 되면 실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수술을 받고 이들을 임상에서 돌보아야 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보호자들에게도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 결 론

신장이식수술 1-10일 이전 상태인 신장이식수술 예정자 32명과 이미 신장수술을 받은 후 1-6개월 이내인 집단, 6-12개월이 경과된 집단, 12-36개월이 경과된 집단으로 구분된 총 110명인 신장수여자 4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존경감, 희망감, 염려사항 및 총 스트레스 원 점수에서의 집단 간의 차이를 밝혀 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수여자들이 신장수술 1-10일 이전인 집단 보다 자아존경감의 평균점수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희망감과 총 스트레스점수는 신장이식 수술 1-10일 전 집단이 수술 이후의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에 따라 신장이식 수술 이전인 신장수여자 집단이 수술 이후 시간이 경과된 신장수여자들에 비해 수술로 인한 회복에 대해 더욱 큰 희망을 갖음과 동시에 이들이 체험하게 될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전술된 방식과 동일하게 집단을 구분하되 12-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26명을 다시 신장이식후 12-24개월이 경과된 15명과 24-36개월이 경과된 11명으로 세분화하여 신장수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44가지 스트레스 원에 대한 평균값, 표준편차 및 순위를 결정하였다. 수술 1-10일 전 집단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음식을 먹고 싶음이었다고 가장 가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친구와의 관계변화였다. 수술후 1-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약물치료에 대한 부작용이었다고 가장 가

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투석환자와의 접촉상실이었다. 수술후 6-12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치료비 문제 및 외모의 변화였고 가장 가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집에서 투약관리였다. 수술이후 12-24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치료비 문제 및 보험의 적용범위였고 가장 가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사망가능성 및 간호사의 유용함이었다. 수술후 24-36개월이 경과된 신장수여자 집단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외모의 변화였고 가장 가벼운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한 것은 전염가능성이었다. 보험의 적용범위 등 치료비를 계속 스트레스원으로 지각하였고 사망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염려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1. 유 희정, 김 창윤, 이 철, 한 오수, 박 인호, 한 덕종 : 수술경과 시간에 따른 신장 수여자의 생활의 질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93. 출판중.
2. Baldree, K., Murphy, S. & Powers, M.: Stress identification and coping patterns in patients on hemodialysis. *Nursing Research* 1990 ; 31 : 107-112.
3. Frey, G.M.: Stressors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at six weeks after transplant. *ANNA Journal* 1990 ; 17 : 443-450.
4. Hathaway, D., Strong, M. & Ganza, M.: Posttransplant quality of life expectations. *ANNA Journal* 1990 ; 17 : 433-440.
5. Hauser, M.L., Williams, J., Strong, M., Ganza, M. & Hathaway, D.: Predicted and actual quality of life changes following renal transplantation. *ANNA Journal* 1991 ; 18 : 295-305.
6. Hayward, M.B., Kish, J.P., Frey, G.M., Kirchner, J.M., Carr, L.S. & Wolfe, C.M.: An instrument to identify stressors in renal transplant recipients. *ANNA Journal* 1989 ; 16 : 81-84.
7. Kaplan, De-Nour, A.: Psychosocial adjustment

- to illness scale(PAIS) : A study of chronic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82; 26:11-22.
8. Rosenberg, M.: The self-esteem scale. In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 Volume 1 in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eries* (Eds. Robinson, J.P., Shaver, P. R. & Wrightman, L.S), Academic Press, 1991; 121-123.
  9. Sayag, R., Kaplan De-Nour, A., Shapira, Z., Kahan, E. & Boner, G.: Comparison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male nondiabetic kidney transplant and hospital hemodialysis. *Nephronology* 1990 ;54 : 214-218.
  10. Sutton, T.D. & Murphy, S.P.: Stressors and patterns of coping in renal transplant patients. *Nursing Research* 1989 ;38 : 46-49.
  11. Terasaki, P.I., Perdue, S.T., Sasaki, N., Mickey, M.R. & Whitby, L.: Improving success rates of kidney transplantation. *JAMA* 1983 Aug 26; 250 :1065-1068.
  12. Voepel-Lewis, T., Starr, A., Ketefian, S. & White, M.J.: Stress, coping and quality of life in family members of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NNA Journal* 1990; 17 : 427-431.
  13. White, M.J., Starr, A.J., Ketefian, S. & Voepel-Lewis, T. Stress, coping, and quality of life in adult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ANNA Journal* 1990 ;17 : 421-424.